

# 작담회

## 사료가격 자율화이후 업계변화와 앞으로의 개선방향

- 일 시 : 9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대한양계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 정 용 (농수산부 축산국 사료과장)  
김 세 헌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장)  
이 현 범 (퓨리나코리아(주) 기술부장)  
김 정 인 (신 촌 사 료(주) 상무이사)  
신 정 일 (구량랜드 대표, 양 축 가)
- 사 회 : 노 영 한 (본 지 편 집 국 장)
- 기 록 : 남 두 희 (본 지 편 집 부 과 장)

사회 : 작년 7월 사료가격자율화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처음 사료가격 자율화 발표가 있던 후 일부에서 자율화로 인해 사료공장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 그 제제가 없어 가격인상을 무척 염려 했었습니다만 많은 양축가들은 현재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진작 했어야 했다고 애기도 합니다. 현재도 일부 부로일러 양축가들은 사료효율이 2.7~2.8정도 나오는 경우에도 이것이 가격자율화 이전처럼 정상인줄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율화이후 2.0~2.1 정도 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본지에서 매월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있는 농장을 찾아 독자에게 소개를 통해 양축가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당시 예상했던 점이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되었나 하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양축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료를 구매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 가를 본지를 통해 홍보코저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사료값자율화는 농업 원자재 공급분야에서 최초의 자율화

(김정용) 농수산부에는 농기계, 농약, 비료, 사료등 여러 재료를 공급하는 분야의 부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農字가 붙은 업계에서의 기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업계에 간혹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 명목으로 통제도 하는 것이 농수산부의 입장이나 항상 제 1 차적으로는 농민의 측면, 사료는 양축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업자의 이윤등은 자칫하면 가볍게 또는 이유가 있어도 농민의 입장에서 두둔하다보니 기업의 이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사료가격이 자율화 될 때도 양축가 입장을 고려치 않고 가격을 결정하면 양축가가 어렵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농업분야중 제일 먼저 자율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반경기가 침체되고 축산업계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 속에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어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서 각 기업체 사이에는 고객인 양축가들에게 적정가격의 유지와 품질의 향상없이 자신의 기업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많은 업체들이 원로대금을 연기하는 등 어려운 형편 중에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하반기 축산업계의 회복과 수요 상승으로 가중되었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는 듯 하나 근본적으로는 자율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 잘 적응 하는 업체는 잘해 나가는 반면 아직도 일부업체는 지금도 상당히 곤경을 헤메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업무의 방향은 자율화라는 것은 같이 될 능력이 없는 업체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혹하지만 될 능력이 없는 업체를 없애 버려 같이 뛰자고 하는 그러한 자율화가 아니라 일부도산을 한다해도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율화 이후 품질 때문에 양축가와 업체간에 약간의 마찰도 있었으나 다만 가격이 묶여 있을 때는 품질에 대해 양축가는 가격을 묶어논 정부와 품질을 지켜야 되는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이제 상황은 품질 가격

의 다양화로 그 양상이 달라 값싸고 질이 낮은 사료를 선택하건, 값비싼 양질의 사료를 선택하건 간에 그 선택의 자유가 양축가에게 주어졌습니다.

---

**양축가는 배합사료 선택권에 따른 책임도 져야**

---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양축가는 사료의 품질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정부로 하여금 배상문제 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자율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초창기의 넉센스라 생각하나 조금 전에도 밝힌 바와 같이 농수산부 어렵게 중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화문제이니 만큼 약간의 부분부분별로 문제점은 있으나 사회자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만큼 발의, 시행을 하고 있는 행정부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료가격자율화는 대표적인 성공예이다**

---

〈사회〉 말씀하신대로 사료가격 자율화가 거의 성공적으로 돼 나가는 것이 양축가의 입장에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바람은 자율화 바람이 부는데, 바다에서도 한 방향으로 바람은 부나 듯대의 방향에 따라 배의 방향이 동, 서, 남, 북으로 향하듯이 자율화의 방향은 당초 가격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시도되었으나 작년이나 금년 초반기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다가 이제 서서히 차이가 나타나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료공장 측에서 공장의 형편을 말씀 해주실까요?



◀ 김정인 (영우산두 축산국 사료과장)



▶ 김정인 (신촌사료(주) 상무이사)

### 기록없는 양계가 기록하는 양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김정인) 작년 자율화 실시 직후 양축가들의 반발은 대단 했습니다. 이유는 자율화되어도 품질의 향상은 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는 것이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당시 10년 정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꾸었으니 피부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비판론도 없지 않으나 자율화는 결국 성공할 것이며 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부 사료공장에서는 자율화 이전이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좁은 식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공장은 근대화한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근대화한 공장들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식 통계로 전체 배합사료 생산능력은 1천만톤 정도인데, 사료 생산량이 대략 350만톤 전후 이고보면 양축가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값싼 사료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사료공장에서 가격을 조작하려해도 전체시장의 12~13% 정도 밖에 점유를 못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료공장 측으로서는 계속 알맞는 가격으로 안정된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아직도 2~3년 정도는 허덕일 것으로 생각되어 양축가 입장에서 잘 판단해 사료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화이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들어 제 주위에서 품질을 논하는 사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감적으로 얘기하던 사양가들이 타회사 제품과 비교시험을 통해 자료를 내놓고 시정을 요구해 거래하는 사료공장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양축가들의 관심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기록을 하지 않던 양축가도 기록을 통해 사육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별로 나쁘지 않은 육계경기로 인해 품질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육계사료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육계사료의 품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반면 산란계 사료의 경우는 불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데이는 어느정도 양축가들의 노력이 적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록의 용이도를 보면 육계가 쉽긴 하지만 산란계의 경우도 계란 10개당 사료 값 또는 사료 1kg당 계란생산량 등을 따지는 과학적인 양계인들이 많아져야 겠다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육우의 경우도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으로 질적인 향상이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양축가는 기록을 통해 배합사료 구매지식을 가져야

---

〈사회〉 값이 수시로 변하니 양축가들이 옛날 습관으로 인해 가격변화에 적응치 못해 옳게 올렸는지 또 질은 좋아졌는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 철저한 기록만이 소득향상의 지름길

---

〈김정인〉 결국 그러한 것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사료의 보증표는 농수산부에서 지시한 같은 것이 붙어 있을지라도 사료원료의 배합문제나 회사의 경영적 사정 등의 이유로 회사마다 상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인 양축을 통해 대응 해야지 무조건 가격에 시비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의 문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양축업자들에게 사료선택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만큼 양축업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

### 자율화로 양축가는 과학적으로 생산비를 비교하고 사료공장은 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을 가져왔다.

---

〈이현범〉 자율화문제가 가격통제 때와 비교해 찬·반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정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판단은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 따라야 할 것으로 더욱 합당한 쪽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자율화이후 양축가들은 규제 때 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데이터를 갖게 되고 과학적으로 생산

비를 비교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은 자유경쟁 만큼이나 의식이 높아졌고 사료공장 측도 경쟁으로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경쟁을 통해 사료공장의 기술의 향상은 물론 사양가의 기술의 진보로 업체모두가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회〉 자율화이후 사양기록부의 이용도가 높아져 본회에서 제작한 바 있는 사육일지는 품질사태를 빚었고 일부 부화장, 사료공장에서도 사양일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축산업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70%가 사료문제, 20%가 질병문제, 10%가 기타 이었는데 자율화이후 사료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옥수수 도입시 사료공장에 장기자금을 지원해 그 자금으로 양축가들에게 파잉생산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브로일러 경기가 한 동안 좋았는데도 입식수가 늘지 못하는 것은 종계문제 등도 있겠지만 금년 2월 부터 사료공장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협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자금 수요조절 등의 문제를 농수산부와 협의해 해결 했으면 합니다.

---

### 양축가는 가격보다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슬기를 가져야

---

〈김세현〉 예부터 양축업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료회사에 뛰어가 문제를 제기해 사료회사 측에서는 양성화되면 사료공장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자기를 구속하면 반감을 갖게 마련인데 과거 10년전 행정지도 가격으로 사료가격 조절 당시만 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 해 사료협회 기획조사부에서는 과거 사료가격 조절이 그 업무의 거의



◀ 이현범(퓨리나코리아(주) 기술부장)



▶ 김세현(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장)

전부를 차지 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의 자율화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 몇년을 연구한 결과 그 당시 김강식 축산국장은 충분한 원료의 공급과 충분한 생산시설의 확보등 2가지만 선행되면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 하던중 작년 7월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양축가들은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어도 가격과 품질의 균일화에 묶여 이용을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어분, 대두박을 별도 구입해 섞어서 먹였습니다. 또 기현상의 하나는 대다수의 산란계농장에서 종계사료를 산란계에 급여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사료공장에서 기술을 총동원 해 생산 해 내는 사료를 불신(?)해 용도 외로 사용하는 문제는 양축가들이 시정을 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사료공장의 시설과잉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돼 과당경쟁으로 까지 번지는 가운데 일부 양축가 들은 그것을 역이용해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축가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값이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가격을 묶으면 당장 그 질과 양이 떨어집니다. 결국 손해는 음식을 사먹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가격

보다 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양축가의 슬기가 요청됩니다. 과당경쟁의 이유중 C.C.C 자금으로 옥수수를 도입하다 보니 1년 정도의 자금 활용기간이 생겨 자금 사정이 좋아져 외상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외상기간이 짧고 긴 것은 업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사료산업은 외상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사료산업의 기업의 영세성 때문일 것입니다.

---

**사료공장의 금융지원은 더욱 연구해서  
유익 하게 활용해야**

---

〈사회〉 외상을 주는 것 자체는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타 산업과 달라 축산업종은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사료값 외상을 통해 넓은 범위에서 잘 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확장을 할 수 있으며 사료회사에서 지원을 했으니 양축가들의 수익을 위해 기술지도는 물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할 수 있어 좋은 일일것 같습니다.

〈이현범〉 사료외상문제는 축산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없

는 경우 공급의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양축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금융지원은 사료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좋은 나쁜 비난의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김정인〉** 의상을 쓰고 안쓰고는 양축가의 문제이니 양축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지금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 생산자로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

### 사료가격은 자율화인데 각 공장 제품 가격은 천편일률

---

**〈신정일〉** 결론적으로 양계업자와 사료업자와의 시장상황이 현재는 좋은 쪽으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과거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많은 외상지원이 있었는데, 사료생산을 줄여 양계업자가 사료를 구하기 위해 쫓아다니던 때도 있었으나 현재 적당한 판매경쟁에서 양계업자로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 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이 양축가에게 전부 주어진 것은 아니나 취사선택에 재량은 많아졌습니다. 진리는中庸이라 하듯이 적당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상의 문제는 상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며 문제는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같다는 것인데 물론 도입원료로 재료도 비슷하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생산원가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규모, 생산하는 장소, 기술, 생산기사가 다를 텐데 이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물론 양계업자들의 수용자 축의 문제도 있겠으며, 우리 국민의 음식점에서 옆사람이 국밥을 찾으면 나도 국밥하는 식의 동질성(同質性) 문제도 있겠으나 양축가가 요구하는 값싸고 좋은 사료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 한바 사료원료 도입의 자유화를 통해 사료회사별로 값싼 원료의

도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 명실공히 자유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며 사료회사 측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 생산자 우선으로 생각 해 주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립된 관계에 있을 때 생산자를 먼저 생각치는 못하더라도 동질적으로 대등하게는 생각해 줄 때는 되지 않았는가 생각 합니다. 하나의 예로 얼마전 부두에서 보관문제로 옥수수 품질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불량 옥수수가 섞인 사료를 먹여가축이 탈이나 양축가가 손해를 본 후 문제가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사료회사에서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불가피성이 있진 않건의 문제를 떠나 제품공급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 배합사료 생산량 집계 좀더 빨리 나왔으면

---

다음에 농수산관계 통계가 미비해 생산조절 등에 애로가 많이 있으나 사료생산실적은 가장 사육수수를 파악하기에 근사한 자료가 되는 바 집계가 매월 15일 경에만 가능하면 양계협회 등을 통해 발표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측면에서 지원 해 주어 생산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 업계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세현〉** 사료협회 통계는 매월 10일이면 집계가 완료되나 축협사료의 통계등의 수차와 함께 농수산부에서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는데 양계사료의 경우 90% 이상이 사협산하에서 생산되고 있어 추세파악은 빠른 시간에 가능 할 것입니다.

**〈김정용〉** 추세파악과 생산조절을 위해 대표 품목의 자료를 집계되는대로 양계협회를 통해 자료를 제공 해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합니다.



◀ 신정일 구랑랜드 대표.. 양축가

### 사료성분등록도 자유화 하였으면

〈김정인〉 사료가격 자율화에서 자유화로 가고있고 과거에 묶는 것에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보호에서 자유 경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찬성을 하고 있는데 주품목을 가지고 성분등록을 자유화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한데, 맥주나 조미료를 선택하는 것 보다 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양축가들은 생업에 바로 직결되는만큼상당히현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외상을 통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짧은 기간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질이 나쁜사료를 통해 장기간 사육하는 것이 유리 할 경우도 있는 것인 만큼 양축가의 입장에서 농수산부의 고시보다 성분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인하 될수 있는 것이니 성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분등록을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축우사료는 우리나라보다 TDN이 떨어지는데, 사실상의 TDN이 우리 것이 높은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완전한 자유화를



▶ 노영환 (본지 편집국장)

생각해 봅니다.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같이 천편일률적인 사료성분표를 가지고는 일부원료의 낭비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축산물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주종10개 품목도 자유화되어야

〈김세현〉 사료회사에 가격을 문의할 때 정확한 가격의 답변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전에 가격자율화 문제가 거론될 때도 등급별 사료를 생각해 보았으나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보다 양축가 선택의 여지는 많아졌으나 가격이 같으니 품질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1년 여 지났으니 정착하려면 앞으로 2~3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겠죠. 20개 품목은 풀렸으나 사실상 주품목 10개 품목이 아직 자율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서 속히 전 품목이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같은 양돈 불황시 각 농가에서는 질 나쁜 사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정규격에 위배되어 사용치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정인)** 반대로 좋은 사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사양 표준은 없지만 개발된다 하더라도 각 사료 공장에서 전면일률적으로 같이 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마다 연구노력 해야 하며 연구노력 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 양축가들도 원하면 서서히 자유화할 방침

**(김정용)** 현재 공정규격의 완화문제 등은 양축가의 선별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자율화 기본방향에 부응하여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많이 푸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만 물론 완전 자유화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울, 경기지역과는 달리 일부 지방의 양축가를 상대하는 사료 공장에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양축가들의 뜻을 모아 협회를 통해 건의 하시면 면밀히 검토 후에 별반 문제가 없는 품목부터 서서히 푸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 사료안정기금 하향조정은 언제쯤 ?

**(사회)** 양축가들도 이제는 독단적으로 생각치를 않고 지방에서도 계우회나 육계회 등 조직을 통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또 사료회사나 제약회사 세일즈맨을 통해 항상 정보에 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품목도 해제를 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강피류 부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대로 큰 애로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바로 자율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옥수수 안정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간의 국제 옥수수가격의 하락으로 안정기금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정용)** 안정기준가격에 대해 다행히 올해 미국 등 대부분의 옥수수 사료곡물 생산지의 상황이 좋은데 이는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안정기금 결손이 180억에 달했는데 상당한 부분인 120억원이 환차손으로 또 옥수수가격 차액보전에 60억원 정도의 결손을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80억원 정도의 상당한 자금이 적립되었습디만 걱정은 내년의 자금 수요가 많이 예측되는바 국산 옥수수의 풍작으로 60~80억 정도의 많은 보전이 예상되는데, 200만톤 상당의 외국산 옥수수를 소비하면서 국내산 6만톤을 소화 못한다면 안되겠고 또 모든 축산경기가 계속 안정세를 유지 한다면 양축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내려야 겠으나 다른 위험부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료협회에서 정식공문을 접수해 여러각도로 면밀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도입 옥수수의 40% 정도를 야적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200만톤에서 400~450만톤 정도로 물량이 증가 할 때의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두 Silo사정도 악화돼 다른 산업분야에 밀려 곡물 전용으로 사용할 Silo를 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당장 어려움에 닥친 경우라면 모르되 축산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마당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제에 그러한 재원을 위한 적립이 필요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회)** 사료공장 현대화 이후 공장의 silo 시설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해결은 가능할 것 같군요.

**(김정용)** 책임한계 등의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옥수수 외의 모든 원료는 개방되었습니다. 수수, 타피오카등 다른 부족원료를 들여와 이용 한다면 사료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배에 선적을 위해 2



만톤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겠으나 사료협회와 협조해 경제적인 원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사료안정기금 취지와 목적에는 찬성하나 사용은 더욱 연구해야

**(이현범)** 안정기금 문제는 각자의 의견이 상이하니 저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첫째로 완전 Free한 상태로 안정기금의 철폐가 있겠고, 두번째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해 사료가격의 안정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세번째로는 사료가격의 안정은 물론 항만시설과 공장근대화 등 사료연관 사업에도 전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료산업안정을 위한 기금 등의 경우가 있겠으나 저는 국가적인 식량자원의 지원으로 국내 옥수수 생산기반 보전과 가격안정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항만 Silo사업 등의 문제는 사(私)기업이 국가의 다른 금융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료안정기금 등에서 전용 사용한다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하며 사(私)기업의 수익성 판단에 의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용)**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국내기업에서도 관심은 갖고 있으나 외국의 기업쪽에서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협이나 국내업체들이 이러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연 우리의 안정기금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문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인식도를 제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정일)** 그런문제는 사료원료 도입이 자유화 되면 각 업체에서 문제점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정용)** 사료곡물 도입이 완전자유화 되고 나면 늦으니 현재 시점에서 관심도를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호는 서서히 개방

쪽으로 전진되고 있으니 사료업체 측에서 많은 관심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수수도입 의외로 보수적인 생각

**(김정인)** 금번 수수도입으로 인한 양축가의 관심은 의외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수수는 나쁘다는 선입관으로 수수가 들어간 사료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밖의 사료 공장의 자금축적이 의외로 여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이 모여야 새로운 기술축적도 일어나고 업계의 발전도 있을텐데, 사료공장의 자본축적이 많지도 않은 가운데 자본의 빈곤으로 또 외적인 요인으로 제제를 받고 있는 점도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체사료의 농장 실험 데이터 등을 농민들에게 시정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 축적은 꼭 필요한 합니다.

**(사회)** 최근 사료가격이 인하되는 회사도 있고 인상되는 회사도 있어 양축가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현범)** 자율화의 장점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강피류 사정이 나빠 탈지강이 kg당 140원 까지하여 옥수수 가격이 갈아지고 있다 강류를 넣지 않든지 적게 넣어 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높은 효율의 사료를 만들어 사료 효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예를 들어 3원이라고 하면 2원의 가격 인상을 해서 양축가에 1원을 돌려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을 5원 내려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3원이라고 하면 값을 5원 내리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사료를 만들어 2원의 이익을 양축가에 돌려 줄수 있습니다.

**(사회)**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년후의 좌담회때는 양축가는 더욱 기장을 철저히 해서 가장 경제적인 사료를 구입하게 되고, 사료공장들도 더욱 연구해서 경제적인 사료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